

유럽의 플로팅건축 답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말

2010년 12월 말 플로팅건축 연구단이 시작된 이후 2011년 6월말까지의 1차년도는 정신없이 지나갔고, 2차년도를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럽의 플로팅건축 사례답사와 관련 건축사무소 등의 대표자와 면담을 위한 출장을 다녀왔다. 방문한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이다. 상당기간의 인터넷 검색, 네덜란드 건축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추천 건물, 플로팅건축 연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시설, 관련 건축사무소 및 건설회사 등을 방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고 : 플로팅건축 연구단
문창호 단장

플로팅건축 답사와 전문가 면담

모니터 화면으로만 접하던 플로팅건축을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고 거주자들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세계적인 플로팅건축 전문 건축사무소인 Waterstudio를 방문하여 Koen소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은 플로팅건축 연구개발의 방향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네덜란드 Massbommel의 주거단지(수목양용)



네덜란드 Terwijde의 주거단지



독일 Hamburg의 IBA Dock



스웨덴 Klädesholmen의 Salt & Sill 플로팅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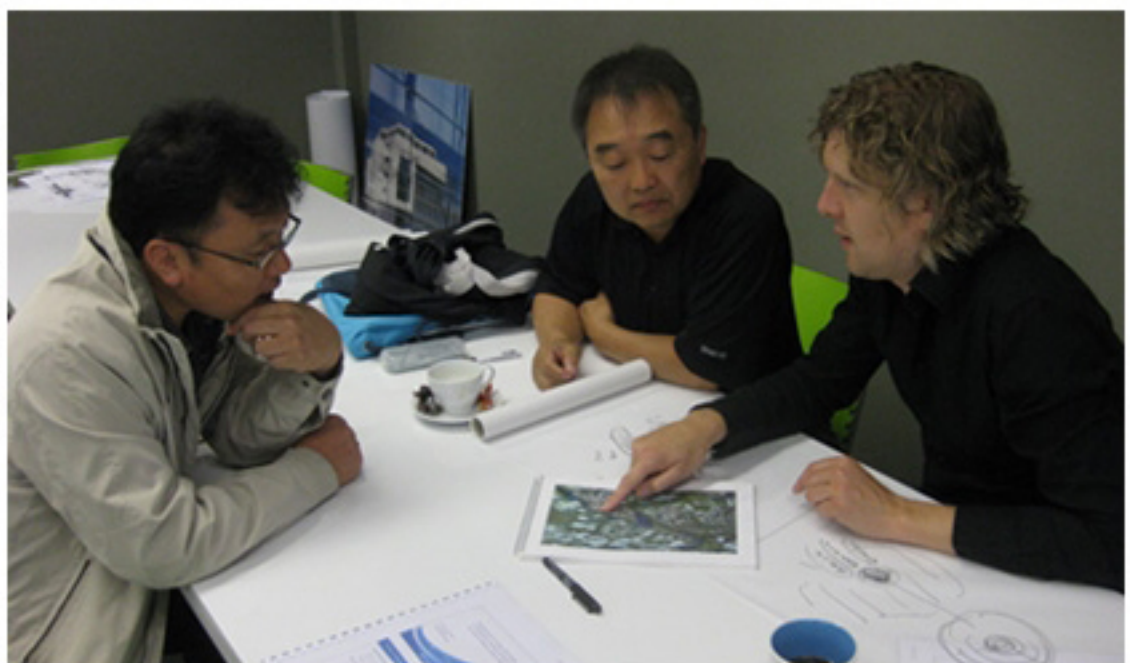
이번 플로팅건축 답사와 전문가 면담의 주요 대상은 앞의 사진과 같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플로팅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적절한 위치에 정수역(靜水域)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답사한 플로팅건축은 대부분 잔잔한 호수나 운하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라고 해도 내해로 깊이 들어온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은 있어도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플로팅건축 건립에 있어서 최우선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플로팅건축 사무소의 대표들과 면담에서, 그들이 플로팅건축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고자 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플로팅건축을 물위에 건물을 띄워서 짓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물위에 대지(함체)를 조성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한다는 개념이다. 단지 물밑 바닥에 있는 땅과 물위에 조성된 땅 사이에 물이 있을 뿐이다. 정수역 확보와 안정된 함체 구축이 선행된다면 플로팅건축이 땅에 짓는 일반건축과 다를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 Salt & Sill 플로팅호텔은 원래 생선 요리로 유명한 식당에 부속되어 건립되었다. 숙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립이 추진되었는데, 인접한 장소에 마땅한 땅이 없고 고객에게 특이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플로팅호텔이 신축되었다. 수준 높은 생선 요리도 즐기고 특이한 호텔을 경험하려는 가족단위 손님들이 많다. 이 호텔은 비록 한적한 시골 바닷가에 건립되었지만, 특이한 건축 자체뿐만 아니라 유명한 식당과 결합한 것이 마케팅에서 성공한 요인으로 보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네덜란드 플로팅주택의 경우 한 쪽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쪽으로는 운하/호수나 바다에 면한 부분은 보트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수륙양용형 주택도 보인다. 플로팅건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가 상승해도 대처가 가능하다. 이러한 수륙양용 형태의 플로팅주택을 이용하면 물과 제방 사이의 버려진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Waterstudio의 Koen소장과 면담

- 플로팅건축에서 함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부건축물의 균형 잡힌 배치가 중요하고 적절한 계류방식이 필요하다. 균형을 잡기 위하여 방에 설치된 몇 개의 물통을 이용하여, 즉 물을 빼거나, 채우고 또는 자리를 옮기는 등 간단한 방법이 이용되는 것을 보았다. 또 계류방식을 보면 수직적 이동만 허용되는 돌핀식이 주류이고, 시설에 따라서는 요트를 계류하는 간단한 방식을 응용하기도 한다. 함체의 형식, 상부 건축물의 형태,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균형 잡기와 계류 방식을 저비용으로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맺는 말

유럽의 플로팅건축 선진국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본격적인 플로팅건축은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약간의 시행착오만 겪는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의 플로팅건축을 답사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제일 큰 소득이다.

한 가지 크게 느낀 점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 지방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플로팅건축 건축사무소의 대표나 직원이 대부분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고, 그 지역에서 지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건축주도 기꺼이 지역의 건축사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있다. 건축사무소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인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즉 지역에 바탕을 두고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세방화(glocalization)를 추구하는 것이 부러웠다. 또한 건축사무소가 지역의 대학과 기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가고 있는 점도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도 보다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의 산업에 취업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이나 교육의 특성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우리 플로팅건축 연구단이 그러한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도시도 유럽의 도시와 같이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